

SK네트웍스, 매출 15조원 달성

9.3% 증가해 3년연속 목표초과 ... 워크아웃 조기졸업 자격 확보

SK네트웍스는 채권단 공동관리가 시작된 이래 3년 연속 목표실적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.

SK네트웍스는 2005년 매출액이 14조8795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658억원(9.3%) 늘었고 영업이익도 3559억원으로 22억원(0.6%) 증가했다고 밝혔다.

SK네트웍스는 “무역·정보통신·에너지판매 등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노력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영업이익률이 상승했기 때문”이라고 분석했다.

EBITDA(법인세·이자·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)는 4722억원으로 목표치 4573억원을 149억원 초과하는 등 채권단과 약속한 목표치를 3년연속 초과달성했다.

SK네트웍스는 “순이익은 3970억원으로 636억원(13.8%) 감소했지만 2004년 투자자산 처분, 채무조정, 지분법 관련 이익 등이 많았기 때문”이라고 설명했다.

SK네트웍스는 “워크아웃 종료기한이 2007년 말이지만 이미 2005년 말 기준으로 조기졸업 자격을 갖추었다”고 강조했다. (서울=연합뉴스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1/27>